

[로스쿨 소식]

2015년 제6회 법조윤리 합격자 발표 - 합격률 96.1%... 지난해 보다 9.4% 상승

법무부는 지난 9월 11일 제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328명을 발표했다. 올해 시험에는 모두 2422명이 응시해 2328명이 합격해 96.1%의 합격률을 보였다.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010년 치러진 제1회 때는 99.4%에 달했으나 2회때는 73.9%로 곤두박질했다. 이어 3회때 97.6%로 회복됐지만 4회때 다시 76.4%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86.7%를 기록했다.

법무부 관계자는 “지난 5년간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면서 기출문제가 누적돼 응시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됐고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법조윤리 수업이 점차 내실화 돼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”며 “앞으로도 로스쿨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할 수 있게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제6회 접수인원은 남자는 1,403명이었고, 여자는 1,060명이었다. 이 가운데 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1322명(56.79%), 여성은 1006명(43.21%)이다.

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얻으면 되는 ‘합격 또는 불합격(Pass or Fail)’ 방식으로 치러진다. 객관식 40문항중 28문항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다.